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온라인 전시문화 새 모델

개막 보름도 안돼 7만6천명 관람...온라인 77% 차지
체험프로그램·아트페어·아트마켓 등 관람객에 호응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개막 한지 보름도 안돼 관람객 7만 6,000명을 돌파해 코로나 비대면시대 온라인 전시 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장 관람객은 목포, 진도 주 전시관에

7,341명, 광양, 광주 등 4개소 특별전에 5,817명, 9개 시군 기념전에 4,574명 등 총 1만 7,732명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온라인 미술관, 온라인 영상관 등)

에는 현장 관람을 하지 못한 관람객 5만 8,762명이 방문했다.
이는 당초 관람객 목표 30만 명의 25%를 넘어선 규모로, 전체 관람객 중 온라인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에 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온라인 전시 문화를 새롭게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관람이 많은 것은 목포 문화예술회관(비엔날레 1관)의 사전에 약제와 정부 미술관 기준보다 강화한 관

람 인원 제한 등으로 현장 관람보다는 온라인 관람을 유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연계한 생활 속 수목작품까지 선보여 관람객이 수목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할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윤림산방에

서 무료로 진행되는 수목 부채·머그컵 만들기, 수목 캘리그라피, 대형 협동화 그리기 등은 어린이를 동반하는 관람객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잡았다.
수목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페어와 수목을 활용한 생활용품 판매하는 아트마켓은 관람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진행한 다”며 “현장 전시뿐만 아니라, 수목비엔

날레 누리집에 VR전시, 수목영상관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까지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목포·진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광주, 여수, 광양, 나주 4개 특별전시관을 비롯 구례, 보성, 해남 등 9개 시군에서 15개 수목 기념전을 동시에 개최해 남도 곳곳에서 수목을 감상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수의사회, 불법진료행위 근절 나선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전남도청서 기자회견

대한수의사회가 불법처방전 수의사, 불법 면허 대여 등 농장동물에 대한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나섰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 이상 불법처방전 수의사, 사무장병원 고용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해 준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불법처방전 수의사, 사무장병원 수의사와 고용주, 시장을 어지럽히고 동물약품소매에 참여하는 도매상, 투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지속 하겠다”며 “지도 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오고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는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있는 약사, 수의사면허 대여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대해 진정으로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전남경찰청에 불법행위를 한 의약품 도매상(영광·광주 소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는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불법으로 만연한 동물약품 유통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활동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적극 시정조치를 실시해 농장동물 전문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장애인단체 이재명 지지선언
광주 장애인 유관단체와 새광주공동체, 광주희망재단이 1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207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남도의회 앞 기자회견
“기득권 맞서 변화·혁신 전인”

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등 207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장과 공정, 돌파형 리더십으로 자치분권시대, 변화와 혁신

을 이끌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을 복원할 후보, 전환기 대한민국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실천할 후보는 이 지사”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대한민국을 혁신할 후보도 이 지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흙수저인 이 지사의 삶은 언제나 위기였지만, 기회로 바뀌면 도전의 역사였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

신을 계승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혁신리더는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종철 전 전남도의회 의장, 조보훈 전 전남부지사, 김대동 전 나주시장, 이영운 전 전남도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 이재명 열린캠프 전남본부 주철현 상임본부장, 이석형 상임고문, 장만재 지역 후보단장, 박원우 언론소통위원장 등 30여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정근산 기자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청지장례식장
CHEONJI funeral hall

금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정현복 광양시장 “내년 선거 불출마”

혈액암 치료·건강 회복 전념
“투기·인사 의혹 성실히 소명”

혈액암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 온 정현복 광양시장(사진)은 “고심 끝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광양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3선 도전보다는 먼저 혈액암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3선 도전 여부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광양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의 책임자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인사 의혹에 대해선 “저와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경위가 어떠하든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법기관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혈액암 치료에 전념하면서 광양발전을 위한 진정성과 충심으로 임



하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부인, 아들이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됐고 측근의 자녀가 부당하게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솔라시도 개발이익 공유 제도 마련

우승희 도의원 조례 개정안
35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전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솔라시도(SOLASEADO)’는 2006

년부터 2025년까지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사업비 2조3,188억원(도시조성비)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개정조례안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거주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공공편의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식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솔라시도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과 간척지 등 지역민의 생계터전을 내렸지만 원주민은 소외되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다”며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자원이자 주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해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